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생명의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속기도 중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 부활절 찬양잔치가 저녁 7시부터 모입니다.
- 다음 주일은 1/4분기 실행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내일(6일)은 사랑방공동체(꾸러기)학교 개교 34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동안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는 휴업합니다.
- 멧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해외문화체험학습으로 4월 6일(월)~6월 13일(토) 미국을 다녀옵니다. 안전과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장 긴급 간담회가 8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회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주제는 지원사업 대응 마련입니다.
-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 함께

강단을 꽃으로 : 한호남 집사 ( 감사 )  
임은숙 집사 ( 감사 )

신헌(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4 호

2026년 4월 5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부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배반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근심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있던 도마와 빌립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하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14:12,14)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하는 이름이 바뀌지만 이름은 태어난 아기의 삶에 밝은 소망과 좋은 바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할 사람'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요?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 두 사람의 이름은 예수로 같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바울이 골로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사하며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예수님의 조상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선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이루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성전 앞에 앉은 못 걷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말하며 그를 일으켰고, 팔 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여인,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하고 말하며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귀신들려 점을 치는 여종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말하여 귀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남겨진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시며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여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받은 선물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한주간의 말씀

“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  
 <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586, 363 / 546  
 기도 :  
 성경 : 열왕기상 18장 1-46절  
 제목 : 응답하시는 하나님

1-16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다  
 17-20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  
 21-40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의 대결  
 41-46 가뭄이 멈추다

해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적용: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해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적용: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잊지 버리거나 배반하지 말  
 자.

해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한 사람이다.  
 적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삶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자.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우스갯소리로 Die(죽다)에 T가 붙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고도 표현하는 그거입니다. 왜 하고 있는지  
 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시대에 태  
 어나 좋은 환경을 누린 덕분에, 몸을 냉장고 마냥 여분의 영양소를  
 많이 저장해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양분을 너무  
 나 많이 저장한 나머지, 건강이나 미관상으로 좋지가 않아 정리할 필  
 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에 관련된 정보야 워낙 다양하고 잘 알려져 있어서, 방법  
 적인 면에서는 크게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본 결  
 과, 중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삶의 영역에서 제한한  
 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익숙해진 욕구 충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 정신적인 면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학  
 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울 때에는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고서 그려내  
 지만, 현실에서는 몇 번 계획이 어그러진 끝에 관둬버리는 것과 비슷  
 한 형태가 반복되던 것이었죠.

삶에서 음식을 피할 길이 없기에, 거기로부터 오는 유혹도 끊이지  
 않는 것도 계획을 어그러뜨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  
 교 교사로서 지내다보면 온갖 간식들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소리와 향기가 오감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때론 느슨해  
 진 기준으로 타협을 하며 자신을 달래기도 하고, 때론 이를 짝 물고  
 눈을 돌리기도 하는 등, 매번 도전적인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주간 동안에는 다이어트를 더 잘 지킬 수 있  
 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라 하더라도 짊어지기로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면, 나 자신을 죽이는 괴로움  
 이라 하더라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다 느끼는 요즘입니다.

미리내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고린도전서 15 : 50-52 인도자  
16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서 43 : 1 인도자  
다함께  
167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20 : 1-18 설교자  
164 사랑방  
“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165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낙귀 정혜정 / 봉헌위원 : 정연갑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빈 무덤의 발견. 부활절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텅 빈 무덤을 마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돈된 세마포를 보았지만, 부활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눈앞의 증거를 보고도 부활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심.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고 "라부니"라 응답하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죽음을 이긴 '새 창조의 시대'로 초대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마리아는 슬픔의 무덤가를 떠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치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절망의 자리를 넘어,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며, 새 생명의 기쁨을 증거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최연우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3월 센싱더스토리 말씀은 성만찬과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센싱더스토리 활동으로 서로 발 씻어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데 아이들은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웃음은 나오지만 서로 잘 씻겨주기 위해 꼼꼼하고, 부드럽게 발을 씻겨줍니다. 작은 천사들의 사랑의 실천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온이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쁜 하온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하온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며 몸과 마음으로 많이 많이 축하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온이는 너무 행복해 하며 멋진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봄에 찾아온 꽃들을 가지고 꽃전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방앗간에 가서 찹쌀도 빻고, 이리저리 다니며 예쁜 꽃들을 따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예쁘게 꽃전을 만드는데 꾸러기들을 위해 멋진 이모들이 오셔서 같이 꽃전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만든 꽃전은 공동체 식구들과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꾸러기들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행복해 했습니다. 손은 많이 가지만 예쁜 꽃 따서 좋고, 꽃전을 맛있게 만들어서 좋고, 모두 모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기온의 차이가 있어 아이들의 옷들이 다양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날이었지만 아름답게 여기 저기에서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이번 학기에 테마수업과 학과 수업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미술 테마시간 졸업생 박예나 선생님께서 '나도 이제 화가', 정승희 선생님께

배움과 가르침

도사님께서 예배시간 설교를 해주시고, 노미현 선생님께서 컴퓨터와 코딩과 공예 클래스 등 외부 강사님들까지 다양한 수업과 식사와 학교 차량까지 공동체 식구들이 어린이 학교 친구들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악기 테마시간 게르에서 쟼베와 카혼소리가 \* 동그라미에서는 톤차임 벨 소리가 \* 1학년 음악시간엔 애국가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4월 6일 월요일은 개교기념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현숙 >

### 멋쟁이학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생활하자는 생활표어를 세워 생활한 한 주였습니다. 전체회의를 통해 고난주간에 아침식사 금식을 결정해서 학교생활 중 아침금식을 하면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의 결단에 따라 간식을 금식하기도 하고 한 주간 금식을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빠지지 않고 했던 축구와 보드게임도 이번 주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금식 대신에 요한복음 성경통독을 했습니다. 하루에 4장씩 교육관에 함께 모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고난 후 부활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린수업도 절기에 맞추어 영화를 보았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루이스 원작의 나니아 연대기 중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슬란을 예수의 상징으로 내세워 창조, 구원, 부활, 마지막 심판 등의 테마를 다룹니다.

토요일에는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4학년 학생들이 해외문화체험을 떠납니다. 멋쟁이 학생들과 부모님, 미국의 장로님 가정에도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최기찬 >

### 3월 마지막 화요일 일기

한 주간 평안한 날도 있고 바쁜 날도 있다. 특히 화요일은 무지 바쁘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느라 아침상을 간단하게 차려 놓고 등교를 한다. 가장 먼저 화장실에 휴지가 걸려 있는지.. 막힌 곳은 없는지.. 휴지통을 비우고 신발을 예쁘게 정리한다. 정리를 하고 나면 어린이 여는 모임 종을 치고.. 아이들과 하루 일과를 나누고 신나게 또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다. 맛난 간식을 먹고 닫는 모임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내일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나누고 차량으로 양주에 사는 아이들 학교 시키고 돌아오면 5시 10분 !!

이제 주방으로 가서 멧쟁이들과 함께 먹을 공동식사 준비를 한다. 살짝 진이 빠져서 말이 안 나와야 하는데.... ㅋㅋ~ 주방에 도착하자마자 한 주간 또는 하루, 지난 추억을 얘기 하며 저녁을 준비를 한다. 화요일 팀은 모두 세 자녀가 있는 가정들로 이루어져있다. 화요일 당번이 되고 싶으면 애를 낳아서 오래나 뭐래나 하면서~ ㅎㅎ 또 이야기 하다보면 "나 때는 말이야~" 가 자꾸 나와서 많이 웃기도 한다. 그중 가장 힐링이 되는 말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들 잘 한다. 역시 부침개는 우리가 해야 맛있어. 선생님이 간 보면 다 맛있어. 우리가 못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먹으면 또 살찌잖아. "등등~ 이다.

주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학교에서 돌아 온 아들과 식구들을 위해 저녁을 차린다. 함께 먹는 저녁이 살찌는 줄 모르고 얼마나 맛있는지~ 학교 얘기를 듣기도하고 역사채널 영상을 함께 보며 알콩달콩 얘기도 하며 밤을 맞는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될 하다보면 12시가 된다. 잠자리에 누워 하루 일과를 정리한다. 오늘 내가 무엇을 했으며 힘든 게 뭔지 하나님께 속상한 얘기를 일러바치거나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며 잠자리에 든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공동체 식구들이 물질로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눠요.^^

그루터기사랑방 이현숙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421장, 321장

성 경 : 로마서 12장 9-21절

말 씬 :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미국과 이란 전쟁 협상과 종전>  
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이 한 달이 되어가면서 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재국들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종전을 향한 협상을 해나가려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잘 이뤄져서 더 이상의 중동 지역의 전쟁이 확정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일본 비전교회>  
일본 비전교회가 교회공간의 채무문제 때문에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사순절 연속기도회와 부활절 준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 2) 계속되는 교육관 증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멧쟁이들과 함께 아침 금식도 하고 세족예배에 참여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화단도 정리했습니다. 파라솔도 새로 마련하면서 공동체를 가꿔가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계속되는 증축공사로 주변이 어수선 할 수 있지만, 다들 주변을 살피며 오히려 정리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손길 덕분에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